다무라 도시코(田村俊子)의 문학과 여성정신질환*

- 히스테리를 중심으로 -

이 지 형**

目 次

1. 들어가며
2. 1910년대 전후의 여성 <정신>에 관한 언설과 다무라 도시코
3. 묘사의 주체이자 객체로서의 여성 - 레즈비언 러브 -
4. 여성정신질환의 양면가치성 - <히스테리>를 중심으로 -
5. 나가며

1. 들어가며

다무라 도시코(이하 도시코로 약칭)는 일본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여성작가의 한 사람이다. 그녀는 「일본여성 최초의 자립한 직업작가」[1]이자 「문자 그대로 근현대 <여류문학>의 출발기에 위치하는 작가」[2]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녀의 활동은 결코 문학이라는 일개 영역에 구속되지 않았다. 그녀는 작가인 동시에 연극배우이자 여성잡지의 발행인이자 여성운동가였다. 또한 그녀는 일본은 물론 캐나다와 중국이라는 동서양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활동을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SRC여성질환연구센터 특별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부 일본학전공 조교수, 일본근현대문학/문화

1) 岩淵宏子 外編『はじめて學ぶ日本女性文學史ー近現代編』(ミネルヴァ書房、2005)、p.58.

2) 黒澤亞里子「田村俊子」『女性文學を學ぶ人のため』(世界思想社、2000)、p.107.

www.kci.go.kr

전개한 코스모폴리탄적인 열정의 소유자였다.[3] 때론 억제할 수 없는 삶의 열정으로 인해 그녀는 근대일본 굴지의 스캔들 메이커로 불리기도 하였다. 사생활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 전반에 있어 그녀가 여성에게 강요되던 사회적 규범의 억압으로부터 일탈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도시코는 장편소설 『체념』(あきらめ)이 1911년, 『大阪朝日新聞』의 현상공모에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한다. 탁월한 여성심리묘사가 높게 평가받은 『체념』은 여성의 관능을 남성이 아닌 여성 자신의 관점에서 묘사한 대담한 필치로 인해 발표 당시부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여성 동성애를 연상케 하는 농밀한 상황 설정을 포함한 끈적끈적한 관능 묘사는 특히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 후 도시코는 『선혈』(生血, 1911년), 『미이라의 입술연지』(木乃伊の口紅, 1913년), 『여자 작가』(女作者, 1913년), 『그녀의 생활』(彼女の生活, 1915년) 등의 화제작을 잇달아 발표한다. 요시다 세이치(吉田精一)는 「일본의 여성 작가 중 최초로 여성의 관능을 대담히 묘사한」[4]작가로 도시코를 평가하였다. 여성의 관점에서 그린 탐미적 시점과 관능적 묘사가 돋보이는 도시코의 소설들은 분명 그 이전의 일본문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학세계였다. 하지만 도시코 문학의 새로움이 유부남 스즈키 에쓰(鈴木悦)와의 연애도피 사건으로 귀결되는 그녀 자신의 부절제하고 향락적인 사생활 등과 결부되어 세간의 비판을 모은 것 또한 사실이었다. 마치 그녀는 <新しい女>의 폐해와 부정성을 상징하는 존재인양 비난받았다. 또한 그러한 비난은 여성 정신의 부정성을 입증하는 절호의 근거로서 도시코를 몰아붙였다.

본 논문은 다무라 도시코 문학의 최전성기로 평가되는 그녀의 초기 소설, 그 중에서도 『체념』과 『그녀의 생활』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우선 1910년대 당시의 여성을 둘러싼 언설과 다무라 도시코의 좌표관계를 살핀다. 이어 동시대적 맥락에서 여성 부정성의 전형으로 인식되던 <여성정신질환>이 도시코의 소설 속에서 어떤 식으로 투영되어 서술되고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에 대한 1910년대 사회 일반의 시선과 도시코 문학의 접점과 분절점은 어디인지, 그 동일화와 차이의 양상 및 의미에 대해 대표적인 여성정신질환으로서 인식되었던 <히스테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3) 스즈키 에쓰(鈴木悦)와의 연애도피에 의한 캐나다 체류 및 그곳에서의 체류일본인 사회를 중심으로 한 언론활동 및 여성운동, 만년의 중국 상하이에서의 여성계몽잡지 『女聲』의 발간 등의 활동이 다무라 도시코라는 한 여성의 삶의 역동성을 증거한다.

4) 吉田精一「近代女流の文學」『國文學 解釋と鑑賞』第37卷3号 (至文堂、1972年)、p.94.

www.kci.go.kr

2. 1910년대 전후의 여성 <정신>에 관한 언설과 다무라 도시코

여성은 근대가 잉태한 대표적 타자의 하나이다. 분명 여성은 근대 이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고 남성과 좀 더 평등해졌다. 하지만 여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가정에 묶어두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의 현모양처주의가 다름 아닌 근대의 산물임을 상기한다면, 자유와 평등을 표면적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면서도 체재 속에서 인간을 물화시키는 근대의 이중성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중성은 바로 근대의 총아인 <이성>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부여받는다. 근대에 있어 <이성>은 모든 감정을 지배하는 초월적인 기표로 작용한다. 페미니즘이 문제제기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즉 「이성은 언제나 남성, 정신, 지성과 동일시되면서 여성, 육체, 감정을 여성적인 것과 등치」[5]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인식을 토대로 근대국가는 여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과거의 절대적인 남녀우열론 대신 남녀성차(性差)론을 제시한다.

절대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이 아니라 남녀가 지닌 태생적 특성의 장단점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러므로 남녀의 사회적 역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남녀성차(性差)론의 입장이다. 즉 남성은 정서보다는 이성이 발달해 있어 사고력, 구성력, 종합력, 객관성 등이 뛰어나므로 행정가, 정치인 등에 적합하며, 여성은 이성보다는 정서적 감성이 풍부하므로 직관력, 이해력, 주관성 등이 우수해 문학, 예술인 등에 보다 적합하다는 것이다. 단순화시키면, 남성은 이성적 능력의 우수함으로 인해 사회 리더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반면, 여성은 이성적 능력의 상대적 열등함 때문에 사회리더와는 거리를 둔 주변적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즉 여성의 감성적 풍부함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것으로 주관성을 배제한 객관적인 이성적 판단이 요구되어지는 사회 중심적 역할을 여성들에게 맡길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성성의 특징으로는 이성, 객관성이, 여성성의 특징으로는 감성, 주관성이 이분법적으로 강조되어, 남녀의 성적 차이에 근거해 남녀 성역할이 차별 할당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이 과학성의 미명 아래 여론의 대세를 점했던 것이 1910년대 전후(메이지 말, 다이쇼 초기)의 일본의 풍경이었다.[6]

---

5)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편, 『페미니즘과 정신분석』(도서출판 여이연, 2003), p.96.

6) 이러한 남녀성차론적 언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지만 그 중 한 예를 들어보자. 당시의 대표적 문필가의 한 사람이었던 가네코 지쿠수이(金子筑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남성이 다원적, 객

www.kci.go.kr

주목하고 싶은 것은, 본 논문의 테마의 하나인 <여성의 정신>에 대한 관심이 바로 근대국가의 위와 같은 성차(性差) 이데올로기 속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최초로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그 관심은 감정의 심한 기복과 같은 여성 정신의 부정적 부분을 과학적으로 분석, 해부하는 일련의 시도들로 귀결되었다. 여성 정신의 부정적 측면을 질환 즉 정신질환의 연장선에서 인식, 사고하기 시작한 것이다. 히스테리, 노이로제, 신경쇠약,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거의 여성의 전유물인양 언급되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근대 초기의 여성의 정신 또는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은 여성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기초하여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극히 제한되어 있던 근대 초기, 그나마 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참여의 문이 열려 있던 많지 않은 영역의 하나였다. 문학이라는 영역 자체가 남성지식인층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만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학 활동을 펼치는 여성들에게 향하는 시선이 따스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거센 여자, 튀는 여자, 스캔들을 일삼는 여자, 나아가 정신적,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 사회로부터 일탈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여자라는 것이 그녀들에게 덧씌워진 동시대 사회 일반의 평균적 인식이었다.[7] 심지어는 여성문학 전체를 여성 정신질환의 산물로서 동일시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마저 존재할 정도였다. 도시코와 그녀의 문학은 여성에 대한 위와 같은 부정적 시선들을 한 몸에 모은 비판의 주요대상이었다. 그러면 그 문학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관적, 모순적인 데 비해, 여성의 본령은 두드러지게 일원적, 본능적, 감성적, 조화적이다. (중략)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다 더 감성적, 생리적, 본능적인 것은 누구에게도 명백한 사실이다. (중략) 여성은 이성이나 논리가 부족하니만큼 본능, 직감은 남성보다 앞선다. 남성들이 객관적으로 밖을 향하여 그 능력을 펼쳐가는 것에 대해, 여성은 선천적으로 연애를 생명으로 하는 감성, 본능, 직관을 하나로 꿰뚫고 있다.」(金子筑水「女性論」『太陽』1912年8月号, pp.18-20)

7) 서구의 근현대 문학사에서 여성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부류로 정형화되었다. 첫째 보살핌, 돌봄, 베풂, 섬김, 살림 등의 모성적 여성성을 구현하는 여자들은 <착한 여자>들로 정형화되었으며, 둘째, 질투하고, 시건방지며, 독하고, 신랄하며, 냉소적인 미소로 남성적 권위에 저항하고, 남성을 타락과 파멸로 인도하는 메두사, 살로메와 같은 여자들은 <나쁜 여자>들로 정형화 되었다. 일본식으로는 이른바 <독부(毒婦)>로 불리어지는 타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할 수 없는 언어로 횡설수설하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난해한 표현으로 남성을 당황하게 하거나, 때로는 침묵의 언어로 일관하는 여성들은 남성들에 의해 <미친 여자>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의 목소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문학을 통해서도 담론적으로 재구성되어 <타자화>되었던 것이다. 여성문학은 이렇게 정형화된 여성 이미지를 부여한 남성중심의 로고스(이성)중심주의에 균열을 일으켜 끊임없이 탈중심화를 시도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성문학가 자신들이 동시대의 남성들에 의해 <나쁜 여자> 또는 <미친 여자>로서 인식되었던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여성은 철저히 동일자 (남성, 이성)로부터 억압, 소외된 타자였던 것이다.

www.kci.go.kr

3. 묘사의 주체이자 객체로서의 여성
-레즈비언 러브-

다무라 도시코의 문학은 자연주의 또는 사소설적 색채가 짙다. 문학사적으로 도시코가 「자연주의로부터 신낭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존재」[8]로 평가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녀의 문학이 도시코 자신의 실생활과의 깊은 연관성 속에서 주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설은 주인공인 여성 시점인물을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체념』에는 여대생 오기후노 도미에(荻生野富枝)의 시점에서 결혼한 그녀의 언니와 양녀로 간 여동생 그리고 도미에의 학교 후배인 소메코(染子)와 연극계 선배 미와(三輪) 등 근대성과 전근대성을 넘나드는 다양한 여성 캐릭터들이 그려진다. 한편 『체념』으로부터 4년 뒤에 쓰인 『그녀의 생활』에서는 시점인물 마사코의 시점에서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 등 동시대 여성문제의 핵심사항들이 서술된다.

가타오카 료이치(片岡良一)는 도시코의 초기소설이 주로 「자아에 눈뜨기 시작한 여성들의 정신적 위기의 문제」 즉 「자아의 불안정함」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한다.[9] 또한 나카무라 미하루(中村三春)는 도시코의 소설이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郎)의 「계급」이나 시가 나오야(志賀直哉)의「가족」등 남성작가가 전유물로서 취급했던 영역이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 즉 「부부」라는 횡적인 관계를 중심적인 관계시스템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도시코 문학의 「페미니즘적 선견성」[10]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러한 평가는 도시코 문학에 대한 현대적 평가를 거의 대변하고 있다. 그러면 소설이 발표되었던 동시대의 평가는 과연 어떠했을까?

> 동일한 성과 성의 관계교섭, 예를 들면 여주인공 도미에와 소메코의 동성간 연애문제, (중략) 성의 관계를 가장 선명히 대담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 게다가 남자라고 하는 것들은 도저히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까지 묘사하고 있는 점, 특히 화려함이나 농염함의 분위기를 띠고 있는 (중략) 점에 이 작품의 강점이 있다.[11]

8) 塩田良平『明治女流作家論』(寧樂書房、1965)、p.172.

9) 片岡良一「田村俊子の生涯」『現代日本文學全集』第70券 (筑摩書房、1957)、p.385.

10) 中村三春「田村俊子一愛欲の自我」『國文學　解釋と教材の研究』第37券13号、(學燈社、1992.11)、p.73.

11) 「新書批評　田村とし子氏の『あきらめ』」『早稻田文學』(1911. 9), p.56.

www.kci.go.kr

『체념』에 대한 위의 동시대평은 도시코 문학을 바라보는 당대의 시선을 알기 쉽게 드러내고 있다. 즉 여성 동성애 혹은 레즈비언 러브와 같은 「남자라고 하는 것들은 도저히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여성 특유의 묘사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어디에도 소설의 문학성 운운하며 평가하는 구절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당시 도시코 문학이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기실 그것의 문학성이 아니라 화제성에 기인한다고 보는 편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화제성의 타겟은 흔히 <애욕> 등으로 표현되는 남녀 관계에 대한 농염한 묘사, 그리고 레즈비언 러브에 대한 내용이었다. 기실 지금에도 도시코의 소설은 문학성 혹은 문학적 완성도의 이름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문학은 분명히 아니다. 작품의 모티브뿐만 아니라 문체나 표현 등에 있어서도 그녀의 소설이 어떠한 의미에서든 여성문학의 초기적 단계의 소설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도시코 문학에 대한 동시대의 높은 관심을 모았던 화제성의 대상이 그대로 그녀와 그녀의 문학에 대한 비판의 타겟과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즉 도시코 문학이 관심을 끈 이유도 그리고 비판받는 이유도 「남자라고 하는 것들은 도저히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내용과 묘사에 있는 것이다. 즉 레즈비언 러브에 상징되는 애욕의 묘사이다. 그러면, 도시코의 출세작인 『체념』을 통해 그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 도미에는 우유가 뚝뚝 떨어지는 듯한 소메코의 볼을 빨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소메코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
> (『체념』, p.36)

> 미와는 늦게 온 도미에에게 말을 건네면서 순백색의 풍만한 상반신을 욕조에 담근 채 목욕물에 비친 몽롱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미에는 미와를 보았다. 그리고 미와의 따스한 살갗과 자신의 차가운 살갗이 팔 언저리에서 약간 스쳐간 순간, 도미에는 이상하리만큼 부끄러웠다.[12]
>
> (『체념』, p.33) (밑줄은 논문작성자에 의함, 이하 동일)

시점인물인 도미에가 각각 소메코 그리고 미와와 더불어 있는 위의 두 장면의 서술에서 스킨십을 포함한 일련의 성적 애욕의 묘사는 그리 대단한 수위가

12) 본 논문에 인용된 다무라 도시코의 작품은 다음의 텍스트를 출전으로 하였다. 『체념』『여자 작가』의 경우는 『現代日本文學全集70 田村俊子 · 武林無想庵 · 小川未明 · 坪田譲治 集』(筑摩書房, 1967年)에서, 『그녀의 생활』은 『田村俊子作品集1』((株)オリジン出版センター, 1987年)에서 각각 본문을 인용하였다. 인용문 뒤의 숫자는 원페이지를 의미한다. 한국어번역은 논문작성자에 의함.

www.kci.go.kr

아니다. 특히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이러한 수위의 표현조차도 당시로서는 「농염함」과「화려함」[13]의 분위기를 띠는 대담한 성묘사로서 받아들여졌다. 오히려 현재적 시점에서 더욱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녀들에게서 발견되는 묘한 <부끄러움>의 감정이다. 서술의 전후맥락으로 보아 소메코와 도미에가 각각 도미에와 미와를 대상으로 느끼는 <부끄러움>은 여성 선후배 사이에서 공유하는 일반적인 정서는 적어도 아니다. 범상치 않은 감정의 표출이다. 그것은 마음에 두는 이성의 상대에게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연정으로서의 <수치심>과도 유사한 정서인 동시에 「남자라고 하는 것들은 도저히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14]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체념』의 서술은 그것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동시대의 남성 지식인들에게 여성들의 「동성간 연애문제」 즉 <동성애>적 표현으로 이해되었으며, 고로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동시에 그 비판은 도시코를 포함한 동시대 『세이토』(青鞜)파의 소위 <新しい女>를 겨냥하는 비판과 오버랩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레즈비언 러브 그 자체에 한정된 비판이 아니라 여성 <정신>의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된 비판이라는 점이다. 즉 여성의 <신체>와 <정신>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비판에 직면한다. 동시대의 『세이토』파 여성들에 대한 비판이 그녀들을 정신이상 게다가 생식기에 질환을 앓고 있는 존재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여성의 <정신>과 <신체>의 분리불가능성을 여실히 증명한다. 여기에서 부상하는 문제가 여성의 정신질환, 그 중에서도 <히스테리>이다. 동시대 여성 정신질환의 대명사가 다름 아닌 히스테리였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다무라 도시코의 소설 속에서 <히스테리>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4. 여성 정신질환의 양면가치성 -<히스테리>를 중심으로-

여성이 자기주장을 펼치기 시작할 때,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여성의 정신 이상으로 여성의 <신체>이다. 오랫동안 히스테리는 여성의 병, 자궁에서 기인하는 병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15] 심지어 중세 시절 히스테리는 마

13) 주11)과 같음.

14) 주11)과 같음.

www.kci.go.kr

녀의 주술로 간주되기도 했다. 히스테리는 자궁이 하체에서 상체로 옮아가서 머리로 이동하여 나타나는 병리적인 현상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히스테리는 이동하는 자궁이었다.[16] 한편 17세기의 계몽담론에서는 히스테리의 원인을 두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감정의 지나친 격앙상태가 히스테리를 초래한다고 믿었다. 프로이트에 이르러서야 히스테리는 성적인 것을 포함한 욕망의 억압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기 시작하였다.[17] 즉 근대 이후이든 이전이든, 프로이트 이전이든 이후이든, 히스테리는 항상 여성 신체 또는 몸과의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거론되어 왔던 것이다.[18]

『체념』이 발표된 같은 해(1911년)에 출범한 일본 최초의 본격적 여성운동 잡지『세이토』파의 <新しい女>에게 향해진 동시대의 비판적 시선 또한 이러한 공식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 어떤 의사의 이야기에도 『새로움을 자처하는 최근의 여성들은 대개 히스테리나 신경쇠약에 걸려 있다. 그리고 열에 여덟, 아홉은 생식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여, 사상의 변화는 생리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9]

남성지식인인 위 인용문의 필자는 「새로움을 자처하는 최근의 여성들」즉 <新しい女>의 문제는 「히스테리나 신경쇠약」과 같은 <정신>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 결과 「생식기」이상과 같은 생리적이고 <신체>적 문제마저도 야기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문제를 대하는 근대 남성들의 저급한 몰이해를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주장이 히스테리는 여성의 자궁의 병에서 비롯된다는 기존 관념의 영향관계의 순

15)岩田ななつ「女性の精神的危機が語るもの」新・フェミニズム批評會編『『青鞜』を讀む』 (學藝書林,1998.11) , p.73.

16) 미셸 푸코, 김부용 역,『광기의 역사』(인간사랑, 1996), p152-153.

17) 주5)의 책, p.98.

18) 히스테리(영어 hysteria, 독일어 hysterie)라는 단어 자체가 '자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hystera에서 파생되었다. 그렇기에 히스테리는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있었던 질병으로서 가장 오래된 의학텍스트의 주제이기도 하였다. '정신분석학'이라는 근대적 학문은 프로이트가 다름 아닌 '히스테리'를 치료하면서 생겨난 영역이다. 『히스테리 연구』(1895년)가 프로이트의 주요 저작(『꿈의 해석』(1900년), 『정신분석입문』(1916년)) 중에서 가장 일찍 발표된 것도 그 때문이다. 한편 히스테리의 어원인 그리스어 hystera의 동사는 '욕망하다, 결핍되다'라는 의미의 '휴스테로'로서, '가난, 결핍, 욕구, 욕망' 등의 뜻을 지닌 명사 '휴스테레마'의 어원이기도 하다. '히스테리'가 흔히 <욕망><결핍>과 관련되어 설명되는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엘리자베스 라이트, 박찬부 외 역,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사전』(한신문화사, 1997), pp.260-264를 참조.

19) 長谷川濤涯「所謂醒めたる女の標本」 (『新公論』1913. 1) 、p.35.

www.kci.go.kr

서를 무자각적으로 역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신체>가 <정신>에 영향을 주던, 아니면 <정신>이 <신체>에 영향을 끼치든, 그 원인 및 결과의 소재와 우선순위는 남성에게 있어 중요치 않은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여성 신체와 정신이 불가분의 관계로서 근대 여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남성지식인들의 믿음 그 자체임을 위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남성이 아닌 여성 자신에게 있어 <히스테리>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다무라 도시코 소설에서의 여성 등장인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체념』을 살펴보자.

> 「지금 돌아온 거니」
> 쓰마코는 돌연 그렇게 말했다. 도미에가 잠자코 언니 쓰마코의 얼굴을 바라보자,
> 「요즘은 자주 무단으로 외박을 하는구나. 이런 것으로 인해 점점 품행이 흐트러진다고는 생각지 않니? 형부와 마찬가지로 너도 집을 비우면, 내 체면이 뭐가 되니. 정말 너나 기에(貴枝)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여동생이 없다니까. 품행불량한 여자들만 잘도 모였구나.」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 도미에는 언니의 애꿎은 분풀이라 생각해 잠자코 있었다.
> 쓰마코는 위압적인 태도로 여러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중략)
> 「이제 돌아오지 않아도 돼. 언니는 내팽개치고 어디든 네 맘대로 가버려.」
> 초조함으로 절규하는 쓰마코의 목소리가 창문 너머 도미에의 뒷모습에 달라붙듯이 들려왔다. 바로 그 순간 쓰마코가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
> (『체념』, p.37.)

후배 소메코의 병문안을 갔다 이틀을 보내고 돌아온 도미에를 향해 언니 쓰마코(都滿子)는 울화통을 터뜨린다. 표면적으로는 외박을 한 여동생을 언니가 나무라는 장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신, 신체의 양면에서 남편에게 절대적 의존관계에 있는 쓰마코는 평소 남편의 잦은 바람기로 고심을 거듭한다. 위의 장면은 쓰마코가 남편과 양녀로 간 막내여동생 기에(貴枝)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의심하여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던 차, 그 애꿎은 화풀이를 때마침 돌아온 도미에를 향해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언니의 신경질적인 몰아붙임에도 도미에가 잠자코 있을 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것이 가엾은 언니의 「애꿎은 분풀이」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꿎은 상대를 향해 분풀이를 하고 큰소리로 절규했다가 돌연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등 심히 불안정한 쓰마코의 감정과 행동은 분명 히스테리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인공 도미에의 시점을 통해 작가 도시코가 그리고 있는 쓰마코의 모습에서

www.kci.go.kr

아직 히스테리 양상의 묘사는 구체적이지 않다. <히스테리>라는 용어 또한 소설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즉 『체념』의 단계에서는 아직 <히스테리> 증상의 표현이 명시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체념』의 2년 후에 발표된 『여자 작가(女作者)』(1913년)의 경우를 보자.

> 여자 작가는 잡아 으스러뜨릴 듯한 힘으로 갑작스레 남편의 볼을 꼬집었다. 이러한 그녀의 병적인 발작에 익숙한 남편은, 또 시작인가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으로 끈기 있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 마음속으로는
> 「뭐 이런 사나운 마누라가 다 있어」
> 라고 생각하며, 아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가만히 잠자코 있었다.
> 여자 작가는 한 번 더 남편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나서 이층으로 올라갔다. (중략) 책상에 앉자, 마치 온몸의 피가 전부 빠져나간 것처럼 몸이 축 늘어진다. 그러자 무턱대고 슬퍼져 눈물이 쏟아졌다.
> 「정말 나는 구제불능의 여자야」
> 흐느끼는 가슴속에서는 이 말이 계속 되뇌어졌다. (『여자 작가』, p.67.)

작가인 여주인공은 작품 창작의 어려움을 마찬가지로 소설가인 남편에게 토로하다가 비꼬듯 힐난하는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다. 분을 삭이지 못한 그녀는 남편을 쓰러뜨리고 입술을 잡아당기고 볼을 세게 꼬집는 등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아내의 이러한 행동에 익숙한 남편은 대항하지 않고 다만 그녀의 「병적인 발작」을 감내할 뿐이다. 오히려 자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아내 쪽이다. 도시코와 그녀의 첫 번째 남편 다무라 소교(田村松魚)와의 결혼생활을 소재로 한 자전적 단편소설 『여자 작가』에서 여성 등장인물의 히스테리적 증상에 대한 묘사는 명확히 『체념』에 비해 구체적이다. 남편은 그녀의 습관적인 발작과 폭행을 「병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내는 흥분이 가라앉으면 예외 없이 자괴감에 힘들어한다. 스스로 감정을 제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녀가 자신의 행동 및 증상에는 자각적임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자 작가』에서도 여전히 <히스테리>라는 단어는 명시적으로 삽입되지 않지만, 여성이 울분을 토하는 대상은 같은 여성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대체된다.

그런데 다시 2년 후의 소설 『그녀의 생활』(1915년)에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 ①그녀의 창작활동은 조금도 진전되지 못했다. 서재에 있으면 멍하게 있는 날

www.kci.go.kr

이 계속되었다. 마사코는 끝끝내 자신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세계를 창조할 수 없는 인간이라 생각하며 홀로 슬퍼했다. 마사코는 점점 히스테리 환자처럼 되어갔다. 그녀는 이따금 심하게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다. 몸 전체가 활기로 넘쳐나는 닛타를 보는 것조차 마사코는 질투가 났다. 이렇게 자기 생활을 점차 파고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남자의 권력의 힘이 그녀는 그냥 미웠다. (『그녀의 생활』, p.258)

②마사코는 남편에게 대들거나 반항하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일을 갖고 남편에게 다짜고짜 싸움을 걸며 쾌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 순간만은 남편을 굴복시킨 듯한 긍지를 느꼈다. 그녀가 이러한 대책 없는 감정을 즐기게 된 것에 대해, 닛타는 이제까지 감추어 온 그녀의 고약한 성질이 이 무렵부터 노골적으로 나타났다고 오해하게 되었다. (『그녀의 생활』, pp.258-259)

소설 『그녀의 생활』은 주인공 마사코(優子)와 그녀의 남편 닛타(新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원래 마사코는 닛타의 열렬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결혼만은 극구 마다했었다. 닛타를 사랑했지만, 「결혼에 응하는 것은 자신의 생애가 남자의 손에 의해 갇히게 되는 것」(p.240)이라고 마사코는 믿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상 여느 남자와는 다른 「새로운 이해」로 그녀를 「아내」로서가 아니라 「영혼을 지닌 여성」(p.240)으로서 존중하겠다는 닛타의 서약에 감복한 마사코는 결국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컸다.

결혼 후, 마사코의 일과 자유를 존중하고자 하는 닛타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창작 작업은 이전처럼 순조롭지 못했다. 가정과 일의 양립의 지난함을 절감한 마사코는 점점 정신적으로 예민해진다. 그래서 결혼 전 그녀가 그토록 닮지 않으려 했던 「남자에 대한 사랑의 질투와 생활의 권태로 인해 히스테리를 일으키곤 하는」(p.238) 뭇 여성들의 삶과 그녀의 생활은 차츰 동일화되게 된다. 즉 그녀는 점차 「히스테리 환자」가 되어갔던 것이다. 감정의 기복은 심해지고 자신과는 달리 결혼 및 출산과 무관하게 일과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는 마사코의 시선이 극도로 예민해짐을 인용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히스테리>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소설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녀의 생활』보다 앞서 발표된 소설『체념』『여자 작가』에서는 히스테리로 추정되는 증상의 묘사는 산견되지만, <히스테리>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www.kci.go.kr

더욱이 인용②에서 <히스테리>를 매개로 마사코와 닛타의 내면 심경이 교차적으로 서술되는 장면은 의미심장하다. 여성인 아내 마사코에게 있어 히스테리는 「쾌감」과 「긍지」를 담보하는 도구이다. 하지만 남성인 남편 닛타에게 그것은 「이제까지 감추어 온 그녀의 고약한 성질」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즉 <히스테리>는 여성과 남성 각각에 있어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마사코에게 그녀의 히스테리는 분명 자각적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남자의 권력의 힘」에 대항하는 의식적인 수단이다. 앞에서의 고찰과 위의 인용①에서 확인했듯이, 히스테리는 당사자의 자괴감을 수반하는 정신질환 양상임에 분명하지만, 적어도 이 장면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성을 내포하는 매개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면, 앞서 살펴본 『체념』『여자 작가』와 비교할 때 이와 같이 『그녀의 생활』의 <히스테리> 묘사가 두드러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체념』의 경우, 도미에의 언니 쓰마코의 히스테리적 징후가 의부증과 결합된 양상으로 엿보이긴 하지만, 그 묘사는 구체적이지 않으며 <히스테리>라는 용어 또한 소설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여자 작가』의 경우에는, 남편을 대상으로 한 여주인공의 히스테리 양상이 세세히 묘사되어 있지만, 히스테리는 마찬가지로 명시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녀의 생활』에서 <히스테리>라는 단어의 사용은 빈번하며, 여주인공은 히스테리를 의식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4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이러한 텍스트간의 차이는 무엇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가능한 한 가지 추론은, 그 기간 사이에 진행된 여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언설 중에서 히스테리 등의 정신질환을 여성의 전유물인양 동일시하는 동시대의 남성중심주의적 인식을 그 자신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코가 무자각적으로 내면화시켰을 개연성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론의 개연성만으로는 석연치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위의 인용②에 삽입된 단어인 「긍지」 그리고「쾌감」이다. 히스테리가 사회적 통념 그대로 도시코에게도 부정적으로만 인식되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쾌감」나아가 「긍지」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히스테리의 주체는 바로 도시코 자신을 모델로 하는 여주인공 마사코이다. 과연 다무라 도시코 문학에 있어 <히스테리>는 여성 정신의 부정적 측면만을 담보하는 상징적 기표로서 기능하는가?

> 「여자가 한편으론 가정을 꾸려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자와 같은 정도로 사회적 활동을 해 나간다는 것은, 명확히 남자보다 곱절의 일을 하는 것이다. 능력의 차이는 어찌 되었든, 양적인 면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다.」
> 이러한 긍지가 마사코의 활동력을 한층 고무시켜 주었다.
>
> (『그녀의 생활』, p.260)

www.kci.go.kr

마사코는 그녀를 얽매는 결혼생활의 굴레 속에서 결혼 전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의 「보통 남자」(p.254)와 별반 다를 바 없었던 남편 닛타를 포함한 「남자에 대한 증오심」(p.253)을 불태운다. 그녀와 몸과 마음은 병들어간다. 갈수록「가슴이 콱 막히고 두통이 생기고 특히 뇌가 항상 병적으로 혼탁해」(pp.256-257)져 감을 느끼게 된다. <히스테리>는 이처럼 그녀가 겪고 있는 증상 그 자체로서의 <자학>인 동시에 이러한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결사적 몸부림으로서의 남편 닛타에 대한 <가학>적 행위로 표출된다. 마사코가 닛타에게 행하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과 그로 인한 「쾌감」이 바로 그것이다. 히스테리는 그녀에게 「긍지」 즉 여성으로서의 자부심을 선사한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마사코가 닛타에게 발신하는 절실한 소통의 메시지로서, 표면적인 갈등과 모순의 과정을 넘어 결과적으로는 두 남녀의 관계가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점차 안정화되는 계기로서도 기능한다.

이와 같은 도시코 문학의 문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페미니즘적 방법론의 분석틀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페미니즘에서 <히스테리>는 부정성의 덩어리만은 아니다. 가부장제 아래서 목소리가 없는 여성들이 자신을 재현할 수 있는 몸언어가 <히스테리>이며, 주체에 의해 명료하게 발화될 수 없는 욕망이자 끝없이 대체되는 욕망이 또한 <히스테리>이다. 바꿔 말하면, 히스테리는 여성이 가부장제의 감시의 시선을 피해 자신의 욕망을 은밀하게 전시하는 한 방법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가부장제의 억압과 타협하는 여성적인 전략」[20]이다. 그렇기에 프로이트는 <히스테리>가 지적인 여성들이 드러내는 현란한 위장전략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협상과 위장전략으로서의 <히스테리>는 여성이 자기시대가 금하는 지식과 권력을 욕망하는 데서 비롯된다.

다무라 도시코의 분신 마사코로 상징되는 1910년대 일본의 <新しい女> 또한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마사코의 히스테리는 자아를 자각하려는 여성의 정서적 불안정에 기인함과 동시에 억압된 가부장제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하려는 여성의 의식적인 발신이자 여성을 억압하는 체제에 대한 균열내기의 시도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분명 히스테리는 <양면가치적>이다. 바꿔 말하면, 남성=긍정성/여성=부정성의 가부장적 이항대립 구조가 여성 부정성의 전형적 근거로서 치부되던 히스테리에 의해 아이러니컬하게도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남성/여성은 곧 지성/감성, 머리/감정, 능동성/수동성, 문화/자연, 해/달, 아버지/어머니, 로고스/파토스라는 식의 이분법적 대립구도의 경계를 히스테리는 구애됨 없이 넘나들고 있다.[21]

20) 주5)의 책, p.109.

www.kci.go.kr

그러한 까닭에, 이상에서 고찰한 도시코의 초기소설들은 부정적인 여성 전유물로 치부되던 히스테리를 통해 역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억압받는 여성들이 스스로의 욕망을 다른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그것이 남성중심주의 사회의 안팎을 넘나드는 협상의 전략으로서 기능하는 전형적 예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히스테리는 낯설음의 단계를 거쳐 점차 여성의 의식과 행동 속에서 내면화되면서 그녀들만의 새로운 <언어>와 <글쓰기>로서 자리잡어 가는 것이다. 다무라 도시코의 문학에서 「페미니즘적 선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특히 이 지점에 있어서이다.

5. 나가며

근대는 가면의 시대이다. 가장 근대적 질병이라 칭할 수 있는 <정신병>마저도 남녀의 성차에 준거하여 이성의 이름으로 차별시하였던 것이 바로 근대이다. 남성의 <신경쇠약>과 여성의 <히스테리>가 그 상징적인 예이다. 이 두 정신질환이 근대의 사회문화적 콘텍스트 내에서 얼마나 차별적인 의미 코드로서 기능하는지는, 국민작가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와 그의 아내 교코(鏡子)을 둘러싼 관계의 언설을 상기하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된다. 신경쇠약은 소세키의 지병이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일본의 근대를 성찰적으로 사유했던 남성 지식인 소세키의 고뇌와 지성을 상징하는 키워드로서 그것은 소통된다. 비근한 예를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교코 부인의 히스테리는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악처(惡妻)의 한사람으로서 그녀를 위치지운 결정적 이유이자, 남편 소세키의 고뇌와 지성을 역설적으로 가능케 했던 보조적 자양분으로서 회자될 뿐이다. <남성=신경쇠약=긍정성>/<여성=히스테리=부정성>이라는 남성중심주의적 대립도식을 여기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근대는 <광기>마저도 남녀 차별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성문학의 세계 속에서 이러한 차별적 대립구도는 해체 가능한 이분법이다. 그 하나의 가능성을 본 논문에서는, 다무라 도시코의 초기소설을 중심으로 1910년대의 여성 관련 언설과 여성 정신질환으로서의 히스테리의 의미를 통해 살펴보았다. 다무라 도시코 소설에서 여성은 묘사의 대상이자 객체인 동시에 철저한 주체이다. 그렇기에 소설은 때론 여성에 대한 세간의 통념을 그대로 답습해 내면화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여성을 응시하는 소설 속 시선은

21) 김진기 · 조미숙 · 황수진『페미니즘문학의 이해』(건국대학교출판부, 2002), p.204.

www.kci.go.kr

때론 사회 일반의 통념에 정면으로 대항한다. <히스테리>의 양면가치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이다. 히스테리는 욕망이 결코 충족될 수 없음을 자각했을 때 발생하는 증상일 뿐만 아니라, 끝없이 대체되는 욕망 자체의 표현이다. 그것은 여성이 죽거나 미치지 않고 가부장제에서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망의 다른 언어적인 표현이자, 근대의 이분법적 세계를 해체함으로써 가치의 다원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다무라 도시코의 초기 문학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가능성의 편린들이다.

【参考文献】

・김진기 ・ 조미숙 ・ 황수진(2002)『페미니즘문학의 이해』,건국대학교출판부, pp.182-211
・미셸 푸코, 김부용 역(1996)『광기의 역사』, 인간사랑, pp.152-153.
・앨리자베스 라이트, 박찬부 외 역(1997)『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사전』, 한신문화사, p.260.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편(2003)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도서출판 여이연, p.96.
・요제프 브로이어 ・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미리혜 역 (2003)『히스테리 연구』, 열린 책들, pp.434-438.
・제인 프리드먼, 이박혜경 역(2002)『페미니즘』, 도서출판 이후, pp.111-118.
・팸 모리스, 강희원 역(1997)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pp.159-223.
・岩田ななつ(1998)「女性の精神的危機が語るもの」、新・フェミニズム批評會編『『青鞜』を讀む』、學藝書林、p.73.
・岩淵宏子　外編(2005)『はじめて學ぶ日本女性文學史ー近現代編』、ミネルヴァ書房、p.58.
・片岡良一(1957)「田村俊子の生涯」、『現代日本文學全集』第70券、筑摩書房、p.385.
・金子筑水(1912)「女性論」、『太陽』1912年8月号、pp.18-20.
・黒澤亞里子(2000)「田村俊子」、『女性文學を學ぶ人のため』、世界思想社、p.107.
・塩田良平(1965)『明治女流作家論』、寧樂書房、p.172.
・十川幸司(2003)『精神分析』、岩波書店、pp.102-107.
・中村三春(1992)「田村俊子ー愛欲の自我」、『國文學　解釋と教材の研究』第37券13号、學燈社、p.73.
・長谷川濤涯(1913)「所謂醒めたる女の標本」、『新公論』1913年1月号、p.35.
・吉田精一(1972)「近代女流の文學」、『國文學　解釋と鑑賞』第37卷3号、至文堂、p.94.

www.kci.go.kr

要 旨

本論文は、田村俊子の初期小説を中心として、1910年代の女性に関する言説と女性精神疾患としてのヒステリーのアンビバレンスな意味性を考察した研究である。

田村俊子の小説の中で、女性は描写の対象で客体である同時に、徹底した主体でもある。だからこそ小説は、時には女性に対する世間の通念をそのまま踏襲して内面化する。しかし女性を凝視する小説内部の視線は社会一般の通念に向かって正面から対抗したりもする。ヒステリーの両面価値性がその典型的な例に当たると言える。ヒステリーは、欲望がとうてい満たされないことを自覚した時に発生する症状であるだけでなく、果てしなく代替される欲望そのものの表現である。それは女性が死んだり狂気に陥ったりしないで、家父長制の中で自分自身を表現しようとする欲望の他の言語的な表現である。延いては、ヒステリーは<男性＝知性＝肯定性>/<女性＝感性＝否定性>という近代の二項対立的な世界を解体することによって、価値の多元化と中心の分散化を模索する新しい試みである。田村俊子の初期小説から見かけられるのは、こうした可能性の片鱗に他ならない。

具体的に、俊子の小説は、女性の否定的専有物として見なされてきたヒステリーを逆手にとって、それが男性中心主義社会の中心と周辺部を越境する対話の戦略として機能する典型的な例を如実に見せてくれる。ヒステリーは、不馴れな適応の段階を経て女性の意識と行動の中で内在化され、女性のみの新しい言語と表現媒介として位置付けられていく。田村俊子の文学でフェミニズム的先見性が評価できるのは、とりわけこの地点においてである。

キーワード：田村俊子、女性、精神疾患、ヒステリー、女性同性愛、
アンビバレンス、欲望、家父長制、抑圧、男女性差論

투　　고	2007. 5. 31
1차 심사	2007. 6. 9
2차 심사	2007. 6. 30

住　所：(121-02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공덕2차 삼성래미안 아파트 106동 201호
電　話：011-9173-1930
e-mail：leejh87@sm.ac.kr

www.kci.go.kr